

# 시민이 체감하는 '전주 대변혁' 구현

### 전주시 기획조정국,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 대도약 실현 등 4대 역점분야 16개 전략과제 제시

전주시가 새해를 맞아 각 분야별 미래 청사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29일 기획조정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역점분야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4대 역점분야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 대도약 실현 △미래 세대 성장 지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구현 등이다.

먼저 시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이중호수 관광명소화' 등 주요 대형프로젝트와 역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미래 청사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가 새해를 맞아 각 분야별 미래 청사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대학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지역대학들과 함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글로벌 대학 30 등 3대 교육혁신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의 자립 지원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 지원 등 '전주형 인구정책'도 추진한다.

한편 시는 행정·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본격화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에는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 예정이며, 오는 2025년 말에는 효자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연다.

시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가구를 대상으로 치매안심 디지털타운을 조성하고, AI 기반의 안부를 묻는 케어콜 서비스와 지능형 CCTV를 탑재한 스마트폴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평생학습 분야의 경우 시는 '전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을 구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나아가 시는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전주' 구현을 위해 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은 "2024년은 전주의 미래 청사진을 동시에 실행하는 원년으로 모든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달라질 전주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봉사단체 '함께할찌니'가 김승섭 전 전주시의원과 이보순 전주시의원 등 봉사단원 40여 명과 함께 전주 중화산동에서 신년회를 열고 이동센터에 90만원, 노인복지관에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 "나눔·봉사활동 적극 나설 것"

### 봉사단체 '함께할찌니', 이동센터·노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전주지역 봉사단체 '함께할찌니' (대표 유종덕)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함께할찌니는 이날 김승섭 전 전주시의원과 이보순 전주시의원 등 봉사단원 40여 명과 함께 전주 중화산동에서 신년회를 열고, 덕진, 앤젤, 스마일 등 3개 지역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 90만원과 꽃발정

노인복지관에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신년회는 함께할찌니가 봉사단체 부문 전주시장 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유종덕 대표는 "올해는 여러 회원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과 많은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올 한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 전주 도서관 이용자 크게 늘어

###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확장 후 지난해 총 197만여명 다녀가

기존 책을 읽고 빌려보던 전주지역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면서 이용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해 1년 동안 12개 시립도서관에 147만 1000여 명, 12개 지역도서관에 50만여 명이 다녀가 총 197만여 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해 24% 이상 증가한 수치로, 12개 시립도서관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서관은 송천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효자동도서관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도서 대출 권수도 142만 2000여 권으로, 1년 전보다 5% 이상(6만 9000여 권)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분야는 '문학류'였으며, 가장 인기가 많았던 도서는 김효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으로 집계됐다.

시는 도서관이 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 이용자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김욱기기자

## 전주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나선다

### 2월 1~7일 상반기 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2명 모집

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청년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2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시는 △청년일자리(18~39세) 사업인 청년몰 매니저 사업 △65세 미만 사업인 꽃도시 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3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근로조건은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다문화 사업은 1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8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मी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기자

## 전주 효자동 새마을부녀회, 쉼터 환경정비 봉사 펼친다

### 전주시 효자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를 주관으로 지난 26일 관내 주민들의 쉼터를 환경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현숙 회장은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편안한 쉼터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환경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자동 새마을부녀회는 3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뿐만 아니라 경로당 할바봉사 및 김장 봉사 등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에

/김욱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